

<2024년 경기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지원 심의총평>

금번 2024년 경기문화유산 활용 공모심사는 세명의 위원이 선정되어 진행하였습니다. 상호간에 심사의 기준점을 점검하고 선정 과정에서 논의하여 할 문제점에 대한 결정 방안도 미리 설정하였습니다.

심의대상은 경기도무형 개인, 경기도무형 보유단체, 국가무형·일반단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였으며, 각 분야의 특성상 다른 기준점을 세워 심사하였습니다.

이수자 등 그 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신청자에 가산점을 주었고, 예능과 기능종에는 기능에 우선점을 부여하였습니다. 동일한 과제의 경우에는 기획력과 공동체적 활용의 폭도 고려했습니다. 경기도 무형보유단체의 경우에는 공모의 지원자수가 많았고, 비슷한 성격의 과제가 많았습니다. 이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와 지역사회에서의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했습니다. 국가무형, 일반단체의 경우 문화재청 등 국가적 지원을 받는 사업보다는 경기도의 문화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.

2024. 4. 17.

심의위원 김 준 기(경희대학교 교수)
정 은 란(성남시 문화관광과)
김 진 희(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)